

전북 체육 꿈나무 발굴·육성

펜싱·롤러·배드민턴·양궁·자전거·축구·컬링·체조 등
도체육회, 전북도 체육진흥기금 활용 육성 사업에 12개 종목 선정

전북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위해 도내에도 발굴·육성한다. 9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전북도의 전북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전북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에 총 12개 종목단체의 사업이 선정됐다.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24개 종목단체의 신청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 체육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사업 가운데 4개는 신규 사업이며 8개는 계속사업이다. 계속사업은 전년도 선정된 사업 중 평가 결과 우수평점을 받아 연속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종목은 펜싱과 롤러, 배드민턴, 양궁, 자전거, 축구, 컬링, 테니스, 체조, 바이애슬론, 수영, 역도 등이며 이들 단체에 약 2억원이 지원된다. 전북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은 "전북의 미래 체육을 이끌어갈 체육꿈나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진흥기금사업은 체육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기초종목과 취약 종목, 비인기 종목 등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클럽) 등을 대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프로농구' 전주 KCC이시스와 부산 KT소닉붐의 경기. 이날 전주 KCC이시스 선수들이 경기 중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로 이어져 관중이 텅 비어 있다.

축구·농구 모두 멈췄다... 스포츠계는 '썰렁'

여자농구마저 10일부터 중단
야구·축구는 개막일도 못잡아

국내 프로스포츠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토화됐다. 잔치에 비견되는 포스트시즌을 앞둔 농구와 배구는 개막 없는 휴식에 돌입했고, 야구와 축구는 아예 시작일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 모두 열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먼저 발걸음을 멈춘 종목은 남자프로농구다. 무관중으로 일정을 진행하던 남자프로농구는 지난달 29일 전주 KCC의 선수단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머물렀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장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확진자 추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무관중 경기가 사실상 의미를 잃자 남자농구는 지체없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임시 방학'을

알렸다. 남자농구의 빠른 결정은 라이벌 종목인 남자프로배구에도 영향을 끼쳤다. 프로배구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3일부터 리그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남자부 우리카드-OK저축은행전, 여자부 KGC인삼공사-한국생명전을 시작으로 예정됐던 남자부 14경기, 여자부 10경기가 미뤄졌다. KOVO는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13개 구단에 관계자 중 확진자 발생시 대응계획에 대해 전파했지만, 구단들이 '이제 리그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중단을 택했다. 여자프로농구는 마지막으로 중단 행렬에 가담했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지 않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 9일 경기를 끝으로 2주간 정규리그가 열리지 않는다. 겨우내 관들의 즐거움을 책임졌던 농구와 배구의 휴업으로 겨울철 프로스포츠는 한 종목도 진행되지 않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재개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설불리 리그를 다시 진행했다가 환자라도 발생할 경우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한 구단 관계자는 "정규리그를 치르지 못한다면 팬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지금은 속개할 명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겨울스포츠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야구와 축구는 시작일 자체가 불투명하다. 프로축구는 1일로 예정됐던 개막전을 잠정 연기했다. K리그 개막 라운드가 밀린 것은 출범 후 처음있는 일이다. 28일 새 시즌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던 프로야구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상 첫 시범경기 전면 취소로 동태를 살피고는 있지만 계획된 일정 소화는 불가능한 분위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추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원조 신공, IOC 여성·스포츠 어워드 수상

김진호 교수, 아시아대륙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이자 '한국 양궁의 원조 신공' 김진호(한체대·사진) 교수가 2020년 'IOC 여성과 스포츠 어워드' 아시아대륙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대한체육회가 밝혔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2006년 탁구의 이예리사 전 대한체육회 선수총장 이후 14년 만이다. 한국 여성 스포츠인 역대 2번째 영예이기도 하다. 'IOC 여성과 스포츠 어워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여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매년 월드 트로피 1개 및 대륙별(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각 1명에게 영예가 돌아간다. IOC는 김 교수가 일찍이 뛰어난 개인 공

적을 세워 우리 사회의 견고한 유리천장을 허무는데 이바지하고, 여성 양궁 메달리스트 모임인 '명궁회' 멤버이자 대한양궁협회 홍보 이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며 국내 여성 스포츠 환경 개선에 앞장 선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예천여고 2학년 재학 당시 197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30m, 50m, 60m 개인 종합에 이어 단체전까지 전 종목을 석권하며 5관왕에 등극했다. 1983년 로스앤젤레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5관왕,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인전 동메달,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3관왕으로 1979년 체육훈장 백마장,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의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됐다. /뉴시스

KPGA 회원·임직원, 코로나19 기부금 4750만원 기탁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 회원과 임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에 동참했다. 9일 KPGA는 회원들과 임직원의 모금 운동으로 조성된 475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KPGA는 지난 5일부터 KPGA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구자철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서도 기부 동참을 이끌었고 이를 본 '골프를 사랑하는 모임' 등의 일반 팬들도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과 긴급구호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 운동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사랑과 희망으로 전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KPGA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드리야 할 때"라며 "TMF 외환위기를 이겨내고 메르스를 떨쳐낸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 지금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강' 남자펜싱,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 우승

한국 남자 펜싱대표팀이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랭킹 1위의 자리를 보여줬다. 대한펜싱협회는 독일부르크에서 3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됐던 2020 독일부르크 남자 사브르 월드컵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구본길,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성남시청), 김준호(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8일(현지시간) 16강에서 북형 영국을 45-38로 여유롭게 제압하고, 8강 전에서는 지난 바르샤바 월드컵대회 우승국인 프랑스를 만나 45-41로 제압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는 45-37로 승리를 거둔 한국은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맞아 45-



32로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017-2018시즌부터 3시즌 연속 세계랭킹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 전망도 확실시되고 있다. /뉴시스

치즈와 열매의 고장, 임실

청정 자연이 준 선물, 임실에 농특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인 농특산물을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실의 이름으로 맛과 품질을 자신합니다.

치즈

고추

한우

복숭아

배

오이

딸기

토마토

양파

감자

임실군 쇼핑몰 063-640-2437 홈페이지 www.imsil.kr